

3) 논문 작성의 절차

논문 작성의 절차는 일반적인 글쓰기의 절차와 크게 다를 바는 없다. 주제를 정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구성과 개요를 짜서 기술하고 되고하는 단계는 일반적인 글쓰기의 순서에 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쓰기의 절차 부분을 참조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논문 작성에 필요한 내용만을 간략히 언급하기로 한다. 물론 논문 작성의 절차와 순서는 연구 분야의 성격이나, 집필자의 경험과 역량, 주제의 난이도 등에 따라서는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항상 적절한 계획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쓰는 것이 논문의 순조로운 진행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동일하다.

(1) 주제 설정

주제는 쓰고자 하는 논문에서 다룰 근본 문제이자 중심 내용이다. 논문은 독창성과 함께 논증을 요하는 글이라는 점에서 참신하면서도 객관적인 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논문의 성패는 주제의 선정에 달려 있다는 말도 있다. 그만큼 주제를 정하는 일이 어렵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논문의 주제를 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학문적인 연구 가치가 있는 문제인가?
- ② 새롭고 독창적인 문제인가?
- ③ 실험이나 논증이 가능한 문제인가?
- ④ 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문제인가?
- ⑤ 범위가 좁고 제한된 문제인가?
- ⑥ 연구자 자신의 능력과 지식으로 가능한 문제인가?
- ⑦ 다룰만한 흥미가 있고 다음 단계의 연구에 도움이 되는 문제인가?

(2) 자료 수집과 정리

주제를 선정하고 나면 이를 입증하고 뒷받침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자료 수집의 방법이나 과정 및 활용은 전공 분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연 과학 분야의 경우는 대체로 단계적 실험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게 되며, 수치나 반응, 현상의 결과 등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한다. 반면 인문 과학 분야의 경우는 문헌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료는 수집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를 평가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전통적으로 자료의 정리에는 자료 카드가 활용되어 왔는데, 이에는 '서명카드'와 '인용카드'가 있다. 서명카드는 서명 또는 논문명을 기입해서 '참고 문헌 목록' 작성 시에 활용하는 카드이며, '인용카드'는 수집된 자료에서 논문에 참고할 만한 내용을 적어 두기 위한 것이다. '서명카드'에는 저자명, 서명, 논제, 항목, 권호수, 발행지, 발행처, 발행 연도 등을 적으며, '인용카드'에는 표제어, 참고 내용, 저자명, 서명이나 논제, 수록 면 수 등을 기입한다.

요즘은 이러한 작업에는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다. 특히 수집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게 되면 자료의 검색과 정리에 많은 이점이 있다. 자료들 중에서 인용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컴퓨터에 입력해 둔다면 실제 논문을 기술할 때에 이를 쉽게 활용 수 있다.

<서명 카드>

최현배, <우리말본>, (서울 : 정음문화사, 1937), p.212.

<인용 카드>

두째 가름 이름씨(名詞)

“이름씨(名詞)란 것은 일이나 몬(物)의 이름은 나타내는 말이란 뜻이니, 곧 일과 몬(物)의 개념을 바로(直接으로) 대표하여 있는 입자씨(體言)이니라.”

최현배, <우리말본>, (서울 : 정음문화사, 1937), p.212.

수집한 자료를 논문을 쓰는 데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가의 과정을 거쳐 다시 정리해야 한다. 자료의 평가란 수집한 자료를 일차 자료와 이차 자료로 나누고, 각 자료가 담고 있는 정보의 진위, 권위나 편견의 정도, 다루는 문제와의 관련성 등을 따져 보는 일이다. 이때 자료의 내용을 직접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도 자료의 저자나 그것을 펴낸 출판사, 출판 시기, 목차 등을 통해 그 가치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도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3) 구성과 개요

논문은 구성과 형식면에서 격식성이 두드러지는 글이다. 논문의 격식성은 우선 그 구성상의 요건에서 드러난다. 곧 서론, 본론, 결론의 3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요건은 다른 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학술 논문에서는 필수 요건으로 강조되고 있다. 즉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를 본론에서 논증하고, 결론에서 매듭짓는 방식의 구성을 해야 한다.

논문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부분은 말할 것도 없이 본론이다. 따라서 본론 부분이 여러 장으로 확대된 경우라도 그 구성 체재를 장별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본론의 각 장은 논지의 전개가 병렬적 관계인가, 점층적 관계인가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다.

수집한 자료를 검토하여 정리한 다음 일정한 순서로 배열함으로써 논문의 구성 작업을 마친 결과물 개요를 나타낸다. 논문의 구성과 개요의 작성 방식은 기본적으로 다른 글쓰기의 경우와 같으므로 여기서는 상세히 언급하지 않고 다만 논문의 구성 예만을 보이도록 한다.

<인문.사회과학 분야 논문 구성 예>

I. 서론

1. 문제 제기, 연구 목적
2. 연구사
3. 연구 방법, 이론적 배경

II. 본론

1. 논의, 평가
2. 결과, 해석

V. 요약 및 결론

<자연과학 분야 논문 구성 예>

I. 서론(문제 제기)

II. 이론적 배경

III. 실험 방법

IV. 실험 결과와 논의

V. 요약 및 결론

(4) 기술 및 퇴고

실제 원고를 작성하고 고치는 단계이다. 원고지를 사용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하든지 간에 논문의 기술은 형식적인 면에 각별히 유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참고 자료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어나 주(註)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정해진 형식과 요건을 따라야 한다.

논문의 퇴고는 일반적인 글다듬기의 요령에 따라 이루어지나 논문이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요건이 충실하게 지켜졌나를 따져야 한다. 특히 학술 논문은 발표에 앞서 일정한 심사를 거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논문의 학술적 가치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